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순례자의 노래 1

김영문 브루노 신부

내가 만든 것도 내 것도 아닌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느님이 가꾸고 내어준 은혜

세상 짐이 무거운 날
 걸음을 멈추고
 빈손과 빈 마음으로 앉아
 눈을 씻고 지친 몸을 깨운다

바람은
 주지 않고 움켜쥔 나무와
 길가에 달린 풀들을 흔든다

하늘 같이 넓은 사랑으로
 산 같이 깊이 감사하며
 호수같이 온유함으로 사는 것
 바람이 속삭이며 앞서 길을 떠난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09/04/2025 기준

현재 약속 금액 - \$ 32,715

현재 기부 금액 - \$ 32,165

현재 참가 인원 - 82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한 개혁 교황 바오로 3세(1534~1549)

1545년부터 1563년까지 18년동안 이탈리아 북부 트리엔트(현재 Trento)에서는 세리판도(G. Seripando) 소토(Dominicus de Soto), 라이네스(D. Lainez), 살메론(A. Salmeron) 등 당대 저명한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공의회가 열렸다. 『트리엔트 공의회』라 불리는 이 공의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대해 교회의 교도적으로 응답한 최고의 대답”이었다는 예딘(H. Jedin)의 말처럼 프로테스탄트가 제기한 문제를 수렴, 가톨릭의 신앙과 교리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당시 혼란스러워진 가톨릭 교의(敎義)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한 교회 내부 개혁 추진의 기초를 놓았다.

공의회를 소집한 바오로 3세(1534~1549)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교회 역사 안에서 「개혁 교황」이라는 칭호와 함께 반 종교개혁의 첫 번째 교황, 또 처음으로 개혁을 진지하게 시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바오로 3세의 본 이름은 알레산드로 파르네세(Alessandro Farnese). 카니노 지역의 명문가 출신인 그는 로마와 피렌체에서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는데 특히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과 연관을 맺으며 공부를 함으로써 훗날 교황 레오 10세가 된 조만지 데 메디치와도 친분을 가졌다. 로마 교회의 재산 관리자를 거쳐 1493년 부제 추기경으로 임명됐던 그는 1509년 교황 율리오 2세로부터 파르마의 주교로 임명됐다. 율리오 2세, 레오 10세, 하드리아노 6세, 클레멘스 7세 등 4명의 교황을 겪으면서 추기경단의 장으로도 활약했던 바오로 3세는 1534년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선종하자 67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재치를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교황직에 올랐다. 바오로 3세의 업적은 대체로 교회개혁, 학문과 예술의 진흥, 『트리엔트 공의회』 소집 등 크게 세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교회 개혁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진다. 중세 말기에 들어서면서 교회 내 폐해가 컸고 실제로 여러 부분에서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회와 교황직이 당면한 최대 화두는 「개혁」으로 모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그 시대 교황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교황직에 임

하는 근본 자세였다. 성직매매, 족벌주의 등 알렉산델 6세를 비롯한 대다수 교황들의 윤리적 부족함은 차치하더라도, 존경받기에 불완전한 추기경단을 임명, 그들이 비슷한 성향의 교황을 선출하고 또 그로부터 추기경단이 임명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던 결과는 결국 추기경을 임명한 교황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루터의 교회개혁도 그러한 상황에서 빚어졌다. 그러나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의 행동을 단순한 수도자 언쟁으로 처리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 평가했고 교황직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교황직은 점점 더 불안전해졌고 칼 5세 황제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의회 개최가 시급하다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지만 한편 교황들은 정치적으로 황제와 대립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오로 3세의 『트리엔트 공의회』 소집은 바로 그러한 면에서 교회와 시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추기경단 개혁부터

교황직에 오르면서 추기경단 개혁을 시작으로 교회 쇠신의 고삐를 죄었던 바오로 3세는 개혁과 쇠신에 앞장설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로 추기경을 임명하고 개혁위원회도 구성, 이들로부터 개혁안을 작성케 했다. 이 안건들은 후에 『트리엔트 공의회』 의안으로 채택됐다. 그같은 노력들은 “로마 성직자들이 쇠신되지 않으면 다른 그리스도교 국가들 역시 쇠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바오로 3세는 수도회 쇠신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주교의 상주 의무를 강화시켰다.

황제와 왕들의 대립으로 개회 전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트리엔트 공의회』는 겨우 1명의 교부와 3명의 교황 특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질 만큼 우여곡절을 드러낸 공의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가톨릭 교회 근세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대외적으로 가톨릭 신앙 교의를 천명한 기회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뼈아픈 자각의 시간이었고 참된 종교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자리를 통해 「신앙 규범으로서 성경의 역할」 「정경(政經)」 「의화」 「성사」 「원죄교의」 등이 확정됐고 개혁 규범 등도 선포됐다. 공의회를 통한 신



앙고백은 공의회 폐막 1년후인 1564년 「트리엔트 신앙고백」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그 외 공의회 문서들은 후임 교황들에 의해 차례로 발표됐다.

문학과 예술에도 관심

바오로 3세는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재임 기간 중 로마대학을 복원하고 바티칸 도서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공로를 남겼는데 특별히 화가 건축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켈란젤로에게 「최후의 심판」 벽화를 그리게 한 장본인이었으며 이외에 성베드로 성당 설계도를 완성하도록 하고 천사의 성을 프레스코화 장식으로 변신시킨 업적도 지니고 있다. 족벌주의 등으로 개혁파와 프로테스탄트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큼 부족함도 남겼었지만 바오로 3세는 그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역사 안에서 “최초로 교회의 개혁에 힘쓴 교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교회 개혁의 많은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공로 때문이다. 그는 로마에 종교재판소를 세웠고 금서 판매자들에게 엄격한 벌을 세우기도 했으며 예수회, 우르술라회를 인준했다. 세계 역사 속 주요 이야기거리로도 자주 등장하는 영국의 헨리 8세 국왕의 파문 사건과도 밀접하다. 즉 1538년 헨리 8세가 자신을 “영국교회 수장”이라고 선언한데 대해 파문 조치를 내렸던 것도 교황 바오로 3세였다.

공지 사항

1 특별 헌금

9/13(토)-14(주일)에 시애틀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2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10/5(주일) 10시 미사
추석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10/2(목)까지 미사지향 예물을 미리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되는 **당일(10/5) 오전 8:00, 11:30 미사는 없습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달력 광고 신청

2026년 달력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함께 광고 기부금을 내시는 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기존에 광고를 게재한 분들도 신청서와 함께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9/14(주일)까지
- 광고 기부금: \$500

4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 행사와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본당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을 봉헌합니다.

- 기간: 7/1/2025 ~ 8/31/2026
- 대상: 전신자

6 구역장 회의

- 일시: 9/21 (다음 주일) 11시 30분
- 장소: 110호

7 구역의 날 및 음식 봉사

- 9/21(주일)은 구역의 날입니다.
10시 미사 후 각 구역원들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음식 봉사: Shoreline 구역
- 메뉴: 들깨 미역국밥

8 가을학기 성경공부반 모집

- (1) 축복받은 성경 읽기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주1회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팀 구성: 창세기반, 탈출기반, 레위기반
 - 대상: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신자들
- (2) 가톨릭 성서 모임 그룹 공부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생활화하는 그룹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 과정:
창세기 그룹 - 그룹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탈출기 그룹 - 창세기 그룹 공부를 마친 분들

- ★ 모임 시작: 9월 중순 이후 (반/그룹별로 추후 연락)
- ★ 담당: 교육분과 최정필 미카엘
- ★ 신청: 본당 사무실

9 성 김대건 한국학교 25-26학년도 1학기 등록

- 일시: 9/12(토요일, 13일) 개강
- 등록방법: <https://sakkoreanschool.org/>, QR코드 등록, 개학날 학교에서 직접 등록
- 금요일: 6:30PM - 9:00PM
- 토요일: 9:30AM - 12:00PM
- 수업료: \$270(교재비 포함), 신입생 등록비 \$10 별도
- 수업료 Check 이름: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Korean School)



10 양윤모 필립 신부님 특강

A FULPHILING WEEKEND WITH FR. PHIL. 한인들의 신앙 여정에 영적인 충만함을 더해 줄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연을 통해 한인으로서의 고유한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믿음과 친교와 전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9/13(토)
- 오후 5:00 1부: 강연
- 오후 7:00 2부: 찬양의 밤
- 오후 8:30 3부: 미사 (전신자 대상)
- 일시: 9/14(주일)
- 오전 11:30 미사/ 신부님과의 만남(4-12Gr)
- 오후 4:00 신부님과의 만남(청년회) + 미사
- 풍요로운 강연을 위해 QR코드로 간단 설문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특강으로 인해 9/13(토) 미사는 오후 8:30으로 시간이 변동됩니다.



11 부모 교육 프로그램

- 대상: 자녀를 둔 30~40대 부모, 선착순 20명
- 기간: 10/11, 10/18(토) 4PM(2시간) 및 이후 미사 참례
- 강사: 신정희 교수(아동학 박사, 아동청소년 상담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역임
- 참가비: \$5
- 신청: 본당 사무실 (교육분과 최정필 미카엘)

12 한국 학교 교사 모집

- 성 김대건 한국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 시간: 토요일 오전
 - 문의: 교감 신정희 실비 718-310-8152 (sakks10@gmail.com)

입당송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주님은 우리 구원이요 생명이며 부활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자유를 얻었네.

제1독서..... 민수 21,4-9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화답송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제2독서..... 필리 2,6-1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3,13-17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리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리라.

성가 안내	입당성가: 122	예물준비 성가: 512,19	성체성가: 153, 166	파견성가: 490
연중 제23주일(9/7)	토요 저녁(7:00)		야외 미사 (10시)	미사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88명	-	347명	-
				435명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장/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옥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Lina Wellness Clinic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다이어트약/영양 수액주사 Linawellnessclinic.com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터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 디 맨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편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갈비·오징어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떡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수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9/25/25)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8/25)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문화교육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옛것과 새것」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성찰하고 있는지, 또 인공지능을 선하게 이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연재로 심기로 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교황청 문화교육부 인공 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

옛것과 새것 (Antiqua et Nova)

100. 특히, 인간의 직접적 개입 없이 대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치명적 자율 무기 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는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고유한 인간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도덕적 우려를 불러온다.” 이러한 까닭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결코 어떤 기계도 인간 생명을 앗아가는 선택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며 “인간의 통제가 더욱 많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무기 개발을 재고하고 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시급히 요청하셨다.

101. 정밀한 자율 살상이 가능한 기계에서 대량 파괴가 가능한 기계로 진행되는 간격이 짧기에, 일부 인공 지능 연구자들은 이 기술이 온 지역의 생존 또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통하여 ‘실존적 위험’을 제기한다는 우려를 밝혔다. 어린이 까지도 포함하여 “많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타격을 끼치는 통제 불가능한 파괴력을” 전쟁에 부여하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오랜 우려를 반영하여, 그 위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전쟁을 검토”하라는 ‘사묵 헌장’의 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02. 인공 지능의 이론상의 위험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욱 시급하고 당면한 우려는 악의를 품은 개인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오용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인공 지능은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인간 힘의 연장이며 미래의 그 능력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인간이 과거에 한 행동들은 분명한 경종을 울린다. 인류 역사 안에서 자행된 잔혹 행위들은 인공 지능의 잠재적 남용에 관하여 깊은 염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103.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류는 지금 전혀 없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서,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되새겨 준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지성을 사물의 긍정적 발전에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타락과 상호 파괴”를 향하도록 쓸 수도 있다. 인류가 자기 파괴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기술 애플리케이션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인공 지능의 이용, 특히 군사 방어용 애플리케이션이 언제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동선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신중한 식별이 이러한 노력에 수반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신성함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군사용 인공 지능의 개발과 사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공 지능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

104. 기술은 전 세계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데에 탁월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자원들의 통제권이 점점 인류에게서 기계로 넘어가고 있다. 일부 과학자와 미래학자 집단에서는, 인간 지성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여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를 가상의 인공 지능 형태인 인공 일반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잠재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인공 일반 지능이 초인적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동시에, 사회가 초월적인 것들과의 결합에서 멀어지면서 어떤 이들은 하느님과의 친교에서만 참으로 충족될 수 있는 갈망인 의미나 총만함의 추구를 인공 지능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105. 그러나 사람 손이 만든 것으로 하느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추정은 이상 숭배로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경고하는 것이다(탈출 20,4; 32,1-5; 34,17 참조). 게다가 인공 지능은 전통적인 이상 곧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시편 115[113],5-6) 우상들과는 달리 “말”을 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에(묵시 13,15 참조) 더욱 유혹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야 하는 핵심은 인공 지능은 다만 인간 면모의 희미한 반영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곧 인공 지능은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생산한 자료로 훈련되며 인간의 입력에 반응하고 인간의 노동을 통하여 지탱되는 것이다. 인공 지능은 인간 삶 특유의 역량을 많이 가질 수 없고 오류도 지닌다. 따라서 인류가 자신의 존재와 책임을 나눌 대상으로서 인공 지능을 그 자체보다 위대한 ‘타자’로 여기고 의존해 버리면 이를 하느님의 대체물로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은 인공 지능이 아닌 인류 자신이며, 이렇게 해서 인류는 자기 작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106. 인공 지능은 인류에게 봉사하고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는 한편, 여전히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사도 17,29) 인간 손의 산물이다. 여기에 결코 부당한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지혜서는 분명히 말한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숨을 빌려 사는 자가 빚은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와 비슷한 신을 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죽어야 할 인간이 사악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죽은 것뿐입니다. 자기가 경배하는 것들보다 그 자신이 더 낮습니다.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러하지 못합니다”(지혜 15,16-17).

107. 그러나 인간은 “그 내면성으로 만물을 초월한다. 마음속으로 돌아갈 때 이 깊은 내면성을 찾는 것이고, 거기에서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기다리고 계시며, 바로 하느님의 눈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기 이해와 다른 이에 대한 개방성이 이루는 신비로운 결합을, 곧 한 개인의 고유함을 마주하는 것과 자신을 다른 이에게 내주고자 하는 의지가 이루는 신비로운 결합을” 저마다 마음에서 발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신다. 따라서 “주님 앞에 공경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우리의 또 다른 힘과 열정 그리고 우리의 온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 뿐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로 대하신다.”

VI. 최종 성찰

108.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기술 발전이 제기한 다양한 도전을 고려하시어, 기술이 가져오는 가능성의 증가에 비례하는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과 양심”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며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 인간의 책임도 확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셨다.

109. 한편 다음과 같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진보의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말 더 나아지는가? 말하자면 영성적으로 더욱 성숙하며, 자기 인간성의 품위를 더욱 의식하며, 더 책임감이 생기며, 타인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빈궁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마음을 열며, 주려는 마음과 모든 이를 도우려는 마음이 더 생기는가?”

110. 그러하기에 특정 맥락에서 인공 지능의 사용이 인간 존엄성, 개인의 소명, 공동선을 증진하는지 판단하려면, 각각의 인공 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여러 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공 지능의 다양한 활용의 효과는 언제나 시작 단계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그 사회적 영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수록,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적절히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한 인공 지능 사용을 보장하려면, 개인 사용자, 가정, 시민 사회, 기업, 기관, 정부, 국제기구가 저마다 고유한 차원에서 활약하여야 한다.

111. 오늘날 공동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는 인공 지능을 관계적 지능의 틀 안에

서 숙고하는 데에 있다. 관계적 지능은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고 다른 이들의 온전한 행복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책임을 강조한다. 20세기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다예프에 따르면, 사람들은 흔히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기계의 탓으로 돌리지만, “이러한 행위는 다만 인간을 모욕하는 것일 뿐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기계로의 책임 전가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기술 사회의 도전들은 궁극적으로 인간 영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에 맞서려면 “영적 감수성의 강화가 요구된다.”

112. 또 다른 고려 사항은 모든 인간적인 것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라는 호소이다. 이는 인공 지능의 세계 무대 등장으로 촉발되었다. 몇 년 전, 프랑스의 가톨릭 작가 조르주 베르나노스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위험은 기계의 증가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기계가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바라지 않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으로 양적 환산이 불가능한 삶의 측면들을 제쳐두고 잊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디지털 환원주의”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은 인간 지성의 풍요로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성을 보완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계산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인간 삶의 측면을 증진하는 것은 “달린 문 아래 틈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안개처럼 알게 모르게 기술 문명 한가운데 자리 잡는” 듯한 “참된 인류애”의 보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참다운 지혜

113. 오늘날, 과거 세대를 경외감으로 가득 채우던 세상의 방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식의 진보가 인간적 영적 불모지가 되지 않게 하려면,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참다운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114. 이러한 지혜는, 인공 지능이 제기한 심오한 질문과 윤리적 도전을 다루기 위하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을 갖추어야만, 마음의 지혜를 회복하여야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새로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지혜’는 “우리가 전체와 부분, 우리의 결정과 그 결과……를 한데 통합할 수 있게 하는 덕(德)이다.” “이러한 지혜는 기계에서 찾을 수 없”

는 것이지만, “그를 찾는 이들이 쉽게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낸다. 마음의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며, 자기에게 맞맞은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닌다(지혜 6,12-16 참조).”

115. 인공 지능이 특징인 세상에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은총이 필요하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관계와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며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신다.

116. “한 사람의 완덕은 그가 지닌 정보나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가늠”되기에, “가장 작은 형제자매들과 취약한 이들,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포용”하는 데에 인공 지능을 적용하는 방식이 “인류애의 참된 척도가 될 것이다.” ‘마음의 지혜’는 이 기술을 인간중심적으로 사용하도록 비추고 이끌어, 공동선을 증진하고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며 진리 추구와 온전한 인간 발전을 복돋으며 인간의 연대와 형제애를 증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인류를 그 궁극적 목표인 하느님과 이루는 복되고 완전한 친교로 이끌 수 있다.

117. 지혜의 관점에서, 믿는 이들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참된 전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윤리적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에는, 기술 진보가 하느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라는 이해, 곧 진리와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향하여 질서 짓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활동이라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5년 1월 14일, 아래에 서명한 신앙교리부와 문화교육부의 장관과 차관에게 허락하신 알현에서 이 공지를 승인하시고 그 발표를 명하셨다.

로마,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문화교육부에서
2025년 1월 28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교리부서 차관 아르만도 마테오 몬시뇰

교황청 문화교육부
장관 조제 툴렌티누스 드 멘돈사 추기경
문화부서 차관 폴 티거 주교

2025년 1월 14일 알현에서
프란치스코
(꺾)